

『만세전』과 근대성

김휘정

『만세전』과 근대성

김휘정

국문초록

본고는 염상섭의 『만세전』을 근대적 주체의 내면여행에 초점을 맞춘 논의이다. 루카치의 말대로, 이 소설은 성숙한 남성의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 성찰은 '공동묘지'로 상징되는 식민지 근대 조선과 나를 둘러싼 세계가 無로 붕괴해버리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역사철학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아내의 위독전보를 받은 '나'는 동경→신호→하관→배안→부산→김천→경성→동경으로 이어지는 귀국여행을 한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파노라마식으로 전개된 삽화들을 통어하는 고뇌하는 주인공의 의식에 주목해야한다. 덧붙여 말하면, 이 소설은 문체적 개인이 갖는 '자기인식(self-recognition)'으로서의 내면여행이다. 또한 크로노토프(chronotope)의 형식이 갖는 삶의 실체를 살아있는 의미로써 체험하는 인생행로라고 볼 수 있다.

후발 자본국인 일본에 의해 세계지본주의로 편입된 근대조선은 자기 갱신의 자발적인 변화로 나아가기보다는 '타율적인 근대' 전환에 따른 '차별화된 역사적 시간'을 체험하게 된다. 전 근대적 질서와 근대적 질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식민지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응하는 작중화자 '이인화'는 세계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기 비판을 폭넓게 전개하면서 근대적 주체의 변화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된 논의의 관점은 근대성의 숨겨진 영역으로서의 '낭만적 연애' 문제와 식민지 근대화라는 객관적 현실로부터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주체의 역동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핀 논의였다.

이런 주체의 인식 변화는 '동경-경성'의 여행 플롯과 적절하게 맞물려서 형상화된 수많은 타자들과의 총체적인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이 모든 타자들은 자신의 주변에 둘러싼 현실과 그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투사된 대상이자 그 자신의 요구와 목소리를 지닌 주체로서의 타자들이다. 즉 나에게 대응되는 주변 인물들(가족들, 정자, 올라, 선실에서 사람들, 순사들, 기차안 사람들)과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조선에 대응하는 제국주의 일본을 훑쳐보기를 통한 시각쾌락이나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한 훑듯 보는 시선을 통해 근대적 주체의 주체성은 확립된다. 그러므로 주체로서의 <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의 준거를 타자와의 관계들의 총체에서 그 자신의 의미를 재정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염상섭의 『만세전』은 근대소설의 진정한 출발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아내의 위독과 죽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식민지 근대 현실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문제를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만세전』은 근대적 주체인 이인화의 관찰 및 반성, 각성을 통해 참다운 개인성의 이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식민지 근대의 착잡하고 복합적인 성격과 그 이면에 제국주의 일본의 정치·경제의 파행적인 식민지 근대성의 실체를 '여행·길'의 형식으로 빼어나게 형상화하고 있다.

주요어: 식민지 근대성, 식민지 근대화, 근대성의 한 영역으로서의 연애, 근대적 주체의 자기 인식으로서의 내면여행, 크로노토프(chronotope) 형식, 아이러니 형식의 미적구조, 고백, 반성 및 성찰, 무수한 타자들, 자기변증적 서술, 선실, 대전역, 루카치, 근대성의 경험

1. 머리말

루카치는 '소설을 성숙한 남성의 형식'¹⁾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숙한 남성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당연히 염상섭의 『만세전』이었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다. 특히, 이 소설은 '공동묘지'로 상징되는 식민지 조선 현실을, 나를 둘러싼 세계가 無로 붕괴해 버리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숙

1) Georg Lukács, *The Theory of the Novel*, Anna Bostock ed., MIT Press, 1971, p.85.

한 남성의 깊은 통찰이 보인다. 이러한 남성의 통찰은 역사철학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단지 연대기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혹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갱신하는 시대정신'²⁾으로서의 역사철학적 근대성이다. 즉 작중화자 '나'의 성찰은 세계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기 비판을 폭넓게 전개하면서 근대적 주체의 자기인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근대적 개인 의식'의 시초를 보이는 「만세전」은 근대문학의 진정한 출발³⁾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왜냐하면, 1920년대 이전에 나타난 소설은 계몽적 근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거나 낭만적 근대의 성격이 짙게 나타난다. 하지만 「만세전」은 자기자신까지도 사고와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근대적 자아의 시각, '지식인의 자기 성찰'이 돋보이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광수의 「文學이란 何오」에서 말하는 것은 文以載道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문학의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문학이다. 이러한 근대문학에 대한 인식이 자아의 발견을 통한 개인성의 이념을 확고히 드러내는 것은 염상섭에 이르러서였다. 그가 「개성과 예술」⁴⁾이란 글에서 말하는 것은 '자아의 각성'을 내포하는 개성의 각성이다. 개성이란 것은 '個個人的 獨異的 生命'의 流露가 곧 '個性의 表現'이다. 이러한 개성의 표현이 드러나는 곳이 예술인데, 「藝術美는 作者의 個性」이라고 염상섭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염상섭의 주장은 그대로 「만세전」에 표상되어

-
- 2) 최문규, 「역사철학적 현대성과 그 이념적 맥락」, 『탈현대성과 문학의 이해』(민음사, 1996), p.16.
- 3) 최원석, 황중연, 정과리, 홍정선 등은 3·1운동이후를 근대문학의 진정한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였다고 하며, 그 지점에서 염상섭의 「만세전」을 중요한 근대문학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근대문학 100년: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동서문학』(동서문화사, 2001. 봄), pp.32~35.
- 4) 염상섭, 「個性과 藝術」(『개벽』22호, 1922.4); 「개성과 예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서영채의 「염상섭의 초기 문학의 성격에 대한 한 고찰」(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을 참조.

있다고 볼 수 있다. 염상섭이 획득한 개인성의 이념은 초기 삼부작(『제야』, 『암야』, 『표본실의 청개고리』)에서 내면의 발견으로 나타나고, 『만세전』에서 그 뚜렷한 문학적 표현을 얻게된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글은 근대적 주체의 자기인식이 『만세전』에 어떻게 전개되어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식민지 근대 현실에 대응하는 작중화자 '나'의 행동이나 태도, 사유양상을 검토하면서 식민지적 근대성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식민지 근대성의 의미를 고구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그것은 근대, 근대화, 모더니즘 등과 연관되어 있고, 식민지 근대의 문제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조선의 특수한 역사적 전개와 관련지어 파악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들이 있다.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철저한 위협과 갈등을 거치며 그 자체의 풍부한 역사와 충분한 전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근대성을 실현한 서구와는 달리, 우리는 후발 자본주의국인 일본에 의해 세계자본주의로 편입되는 근대의 수용이었다. 따라서 자기 갱신의 자발적인 변화로 나아가기보다는 '타율적인 근대' 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식민지적 근대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삶의 층위를 형성하는 '차별화된 역사적 시간'⁵⁾을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근대적 질서와 근대적 질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식민지적 근대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근대의 철폐가 식민지 극복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음을 자각하고, 그 길을 모색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성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만세전』이다.

요컨대, 역사적 경험인 근대성(modernity)은 자본주의가 변화·확산되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근대화 및 개인적인 삶과 인격에 발생하는 주체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즉 인간 능력의 고양이나 인간 경험의 확장으로서의 자아발

5) '차별화된 역사적 시간'이란 한 국면이나 시기는 다른 국면 또는 시기들과 비연속적인 뿐더러 그 자체내에서도 이질적일 수 있다. 페리 앤더슨, 『근대성과 혁명』(김영희 외역, 『창작과비평』, 1993. 여름), p.343 참조.

전(self-development)이라는 관념 속에 내포된 모든 것을 지칭한다. 한편 자본주의는 전세계에 걸쳐 문화와 관습의 낡은 부스러기들을 쓸어내면서 모든 해묵은 제약, 봉건적 속박, 사회적 경직성, 편협한 전통 등을 해체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전(前)자본주의시대의 고정된 사회적 신분과 엄격한 위계질서 및 편협한 도덕과 제한된 상상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된 개인은 심리적으로 자아의 가능성이나 환희, 새로운 능력과 정서들의 해방이지만, 동시에 그 개인은 불가분하게 심각한 혼란과 불안감, 좌절과 분노 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마살 버먼은 “이런 동요와 혼란, 어지럽고 취한 듯한 심리상태, 가능한 경험의 확장, 도덕적 제한과 개인의 속박의 철폐, 자아확장과 자아분열, 거리와 영혼을 떠도는 여러 환영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분위기가 바로 근대적 감수성을 탄생시킨 분위기”⁶⁾라고 말한다. 이렇게 근대화와 모더니즘을 매개하는 경제발전과 자아발전이 만들어낸 근대적인 경험일체를 근대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식민지 근대성은 근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과 경험을 통해 드러내는 특성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시공간적으로 불평등하게 진행된 타율적인 근대화를 강요받은 식민지 근대 조선의 역사적 특수성을 근대적 주체가 어떻게 인지하고 모순 이질적인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식민지 근대성의 실체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는가에 주목하려고 한다.

2. 複數의 타자를 통한 주체의 자기인식과정

근대적 주체의 자기인식이 서사형식을 통해 객관화하려는 작업은 염상섭

6) Perry Anderson, *Ibid.*, pp.338~9. 또한 근대성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조.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민음사, 1997); 「한국근대사회의 형성과 근대성 문제」(『창작과비평』82호, 1993. 겨울); 민족문화사연구회편, 『민족문화와 근대성』(문학과학지성사, 1995).

에 의해 시도된다. 그는 자기인식에 이르는 과정을 여행 형식에 의해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게 처음 시도된 서사형식은 『만세전』이다. 그러므로 『만세전』은 소설의 내적 형식이 문제적 개인의 ‘자기인식(self-recognition)’으로서의 내면여행이라는 루카치⁷⁾의 비유를 실제 여행으로 형식화한 소설이다. 여기서 작중인물인 나의 여행은 단순히 공간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크로노토프(chronotope)의 형식이 갖는 삶의 실체를 살아있는 의미로써 체험하는 인생행로⁸⁾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작중화자인 이인화는 문제적 개인이다. 물론 문제적 개인이 직면한 현실은 ‘연애/결혼’을 둘러싼 가족과 ‘망국백성’으로서의 실존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이인화는 봉건적 조혼으로부터의 탈출인 동시에 무덤으로 인식되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로부터 동경으로 도피해 온 유학생⁹⁾이다. 그래서 이인화는 동경에서 줄곧 우울한 일상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적인 인물로 드러난다. 그러한 나(이인화)는 다시 동경에서 경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자기인식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여행이 아내의 위독을 알리는 전보를 받고 막연한 우울증에서 벗어나 식민지 근대의 조선현실을 명확하게 획득하는 현실체험에 있다. 그 과정은 식민지 지식인의 자기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반성적 고뇌를 통해 식민지 근대 현실을 자각

7) Georg Lukács, *Ibid.*, p.74.

8) 미하일 바흐친,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창작과비평사, 1997)참조.

9) 「혈의 누」 및 「무정」에서 보이는 외국으로의 유학은 봉건적 현실의 계몽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유학이 갖는 의미는 『만세전』에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 점은 ‘현실’을 계몽해야 한다는 폭력적 목소리보다, 그 현실을 자기반성으로 고뇌하는 지식인의 면모로 드러난다. 이런 것이야말로 『만세전』이 갖는 근대소설로서의 새로움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글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나병철, 「근대와 탈근대의 문학적 쟁점」(『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이선영, 「시각의 진보성과 회고성」(『廉想涉 全集 I』, 민음사, 1987); 최원식, 「식민지 지식인의 발견 여행」, 『만세전』(창작과비평사, 1999); 이훈, 「『만세전』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한국언어문학』제45집, 2000.12.).

하는데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관건이 되는 것은 근대적 주체의 자기인식과정이 여행의 플롯과 적절하게 맞물려서 형상화된 수많은 타자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다.

서구의 근대적 자아개념은 합리적 주체를 항상 타자와 대립하게 규정하면서 아이덴티티를 입증하고자하는 하는 성향을 보인다. 근대적 주체는 주관성의 원리에 입각한 근대적 개인과 주객 동일성을 지향하는 집단적 주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¹⁰⁾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인화는 데카르트이후의 주관성에 입각한 근대적 개인에 입각해있다. 따라서 그는 모든 대상을 자신의 주관적 사유 속으로 끌어들이 대상화시킨다. 이러한 근대적 주체는 모든 타자들을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현실과 그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투사된 대상으로 여길 뿐이다. 하지만 타자를 자신의 소유 속에 종속시키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요구와 목소리를 지닌 주체로서의 타자를 인식함으로써, 주체로서의 <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의 준거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재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만세전」의 작중화자는 무수한 타자와의 관계들의 총체를 동경→경성으로의 여행을 통해 그 자신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나'의 면모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식민지 근대성이 어떻게 개인을 둘러싼 전근대적 가족 관계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삶의 질서로 변화·확장되어 가는가에 주목해야 할 점이다.

1) 동경의 시공간에서 주체의 내면 여행

우선, 동경→신호→하관→배안→부산→김천→경성→동경으로 이어지는 여로형 서사구조에서 이인화는 핵심적 위치에 놓여있다. '아내의 위독 전보'를 받고 동경을 떠나 경성으로 온 <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에 다시 동경으로 떠나게 된다. 우리는 이 여행에서 파노라마식으로 전개된 삽화

10)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민음사, 1994), pp.276~284.

들을 통어하는 고뇌하는 주인공의 의식¹¹⁾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작중화자 <나>가 보고 체험하는 사실들과 그 사실들에서 팽팽히 이어지고 얽혀지는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는 나의 의식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나>의 경험 영역으로 제한되는 관찰, 고백, 자기변증적 서술 등으로 이루어지는 서술형식¹²⁾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작중인물의 가장 내밀한 생각과 감정과 신념을 확실히 드러내는 장치로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겹겹증이 나서 몸부림을 하는 일종의 발작적 상태는 자기의 내면에 깊게 파고들어 앉은 ‘결박된 자기’를 해방하려는 욕구가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그 발작의 정도가 한층 더하였다. 말하자면 유형무형한 모든 기반, 모든 모순, 모든 계류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내지 않으면 질식하겠다는 자각이 분명하면서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자기의 약점에 대한 분만(憤懣)과 연민과 변명이었다.¹³⁾

알다시피 작중화자 이인화는 ‘사랑없는 결혼’을 하고서 동경으로 도피해 온 유학생이다. 아내의 위독 전보를 받은 이인화는 비로소 ‘지금-여기’의

11) 최원식, 앞의 글, p.167.

12) 최시한, 『현대소설의 이야기학』(프레스 21, 2000), p.63.

13) 염상섭, 『만세전』(창작과비평사, 1999), p.24.

염상섭의 『만세전』은 1922년 『新生活』에 「墓地」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그 중 제 3회분은 총독부의 검열로 완전히 삭제되었고 잡지의 강제 폐간으로 중단되었다. 2년후 『시대일보』(1924 4.6~6.7)에 총 59회에 걸쳐, 어렵게 연재를 마친 『만세전』은 1924년 8월에 高麗公司에서 초판이 간행되었고 재판은 해방 3년후 修善社에서 나왔는데, 수선사 재판본은 초판을 대거 개작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텍스트의 저본은 최후의 수정본을 원전으로 보는 관례에 의거해 수선사본에서 나온 『만세전』을 확정본으로 하여 편집한 창작과비평사 간 『만세전』을 택할 것이다. 앞으로의 인용은 인용면의 숫자만 표기하기로 한다. 하지만 『만세전』개작은 문제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고려공사/수선사본 개작의 차이는 문학사적 의미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재선의 「日帝의 檢閲과 『만세전』의 改作」(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연구』, 민음사, 1987)과 신철하, 『복식임기의 사회사학-『만세전』의 재해석』(『외국문학』, 제20호, 1989, 가을.)을 참조할것.

자기정체성에 대한 역사철학적 성찰을 하기 시작한다. 그 성찰은 '연애와 결혼'의 문제를 제기하는 자기비판의 목소리이다.

조선 유학생은 '돈 있는 집이며, 인물도 좋아서 동경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다. 이러한 점이 <나>의 실존적 조건이다. 게다가 '얼마쯤 무차별과 노골적인 멸시를 받지 않을 수 있는'(p.14.) 동경의 술집에서 보내는 생활은 망국민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실존적 상황이다. 이렇듯 '돈있는 조선유학생이자 망국민'인 이인화는 귀경으로 이어지는 '아내의 위독 전보'를 통해 타자로서 자기를 통찰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일찍이 결혼하여 3살된 아들을 남겨두고 동경으로 탈출한 <나>는 아내의 위독 전보를 받고 귀국을 망설이는 도피심리를 '정자'와 '올라'의 삽화에서 여실히 보여주며 '결혼과 연애'에 관한 자기변증적인 서술을 한다.

전근대사회에서 결혼은 남녀 누구든지 통과해야 할 하나의 의례이다. 이러한 통과의례는 모든 개인에게 성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재생산을 해도 된다는 공적인 허용이었다. 하지만 근대이후에 '결혼과 사랑'의 의미는 달라진다. 대체로 사랑은 감정의 영역으로서 정념의 문제이고 시공을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과 관련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의 개념은 근대적 개인성의 출현과 맞닿으면서 문제시되는 연애 혹은 근대적 사랑이라는 사회·역사적 현상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타자와의 소통관계는 근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연애'의 개념에서 시작된다. 연애는 근대문학의 발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현상이기 때문에, 자유연애는 주체의 자기이해와 자기규정의 근거를 확고히 해 주는 타자와의 구체적인 소통관계이다. 연애는 감정의 이름이 아니라 근대적인 사회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고안된 명칭이며, 근대성의 숨겨진 영역¹⁴⁾이다.

이러한 연애의 문제는 고스란히 「만세전」에서 '이인화'와 '아내-정자-

14)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제18호(소명출판사, 2001), p.302.

올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내의 위독 전보를 받은 '이인화'는 "아직 죽지는 않은 계로군!" 하면서 시니컬한 반응을 나타내는 동시에 "의아한 생각"(p.7.)을 갖는다. 한편,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다듬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자주 드나들던 술집의 '정자'를 만나는 행동을 통해서 근대이후에 사랑의 정념을 기반으로 하는 '결혼과 연애'의 문제가 근대성의 돌출로써 나타난다. 아마도 '사랑없는 결혼'이 당연시되던 전근대사회와는 다르게 작중 화자 이인화는 '사랑 love'의 문제를 정면적으로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사랑은 '저 혼자의 일'이며 사람에게에는 '사랑할 자유도 있거니와 사랑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며 혹은 '부부간이라고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다. 따라서 '연애 love'는 '본능과 감정'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근대성의 이면에 있는 가장 사적인 '친밀성'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회·심리적인 변동을 추적케 하는 근대성의 한 성격이라할 수 있다.

이인화는 카페걸인 시즈꼬상(정자)을 아내처럼 냉연히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또 다른 의미로 정자를 사랑할 수 없'(p.12.)다고 한다. 한편, 예정없이 시모노세끼(神戶)에 내린 그는 "올라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완행이 지리 해서 내렸을 뿐"이라는 자기변증적인 진술을 한다. 그렇다면 이인화는 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냉혈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걸까?

대체로 전근대사회는 사랑과 결혼이 별개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정적 사랑이 결혼의 필요·충분조건인적은 없다. 가히 종교적이라 할만큼 대혹의 속성을 강렬하게 지닌 열정적 사랑(passionate love)은 대체로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열정적 사랑을 포괄하는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¹⁰⁾은 더 넓은 사회적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준거점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어떤 개인적인 서사 안에 자아와 타자를 삽입하는 지극히 개인화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통관계이다. 특히 이상적으로 자유와 자아실현을 결합시킨 낭만적 사랑은 특정한 타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가려내

는 성격상의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은 발생초기부터 친밀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욕정이나 노골적인 섹슈얼리티(earthy sexuality)와는 양립 불가능하다. 이런 친밀성은 사랑의 대상을 이상화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낭만적 사랑 자체가 어떤 정신적 커뮤니케이션, 즉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성격을 띠는 영혼의 만남을 가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낭만적 사랑에 빠진 개인에게 그 사랑의 대상인 타자는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한 전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이다.¹⁵⁾

그렇다면 이인화는 여성 타자와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이상적인 낭만적 사랑이 실현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되어 있는 ‘모든 모순적 질곡’에서 자기구원의 한 표상으로 ‘낭만적 사랑’의 이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약점(전근대적 가족관계와 망국민의 백성을 포괄하는)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무기력한 고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귀국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봉건적 가족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빨리 직면하고 싶지 않은 도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일찍이 근대성의 물적 차원이 제도화되고 일상화된 현실을 근대도시의 동경에서 체험하고 있던 이인화의 모든 탈출적인 행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출이 아니다. 동경에서도 전근대적인 가족관계와 민족현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결박된 자기’였다. 그의 동경유학은 도피적 성격의 자유분명한 일상적 표출이었고, 그의 내면은 ‘가식의 도덕적 관념에서 해방되어 참된 생명을 찾고 싶지만, 유형무형의 모순적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동경의 시공간에서 주체는 “자아와 세계의 구성적 대립성의 중립적 상태의 원형”¹⁶⁾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15) 앤소니 가든스는 낭만적 사랑이 개인의 삶에 어떤 서사관념을 도입하는데 이것은 숭고한 사랑이 가진 성찰성을 근본적으로 확장한 형식이라고 한다. 동시에 낭만적 사랑의 발생은 소설의 출현과 얼마간 일치하고 이 둘의 결합은 새로 발견된 서사 형식의 하나이다. 「낭만적 사랑, 그리고 다른 애착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새물결, 1996), pp.84~85.

16) 앤소니 가든스, 위의 책, p.91.

이렇듯 모호한 도피 심리와 중립적 태도는 반전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파노라마식으로 전개된 **상황의** 연속에서 주인공 <나>는 하나의 자기발견, 성숙한 자각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계기는 하관(下關)에서 탄 배의 목욕탕에서 듣게 된 세 사람의 日人 浴객의 대화에서 비롯된다. 그 대화내용은 불쌍한 농촌 노동자를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에 싸구려로 팔아 넘기는 이야기였다. 여기에서 근대적 주체는 내적 충격을 받는 심연같은 식민지 근대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그 현실은 파행적인 식민지 근대화가 갖고 온 모순이자 불합리성이다.

일반적으로 근대화(modernization)는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의 등장으로 박차를 가하게 된 사회의 거대한 객관적 변화를 의미하는 경제상의 발전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근대화는 이중적 층위를 갖는 복잡한 경로이다. 특히 전근대적인 경제조직과 생산방식으로부터 산업자본주의의 공업화를 달성하는 것이 근대화의 한 통로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과정과 문화적 비전사이를 어느정도 매개해주는 근대성(modernity)과 이 둘의 성격을 ‘발전(development)’ 개념으로 설명한 마셜 버먼의 논지는 우리의 근대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이 발전개념은 ‘수탈이나 강탈’의 제국주의의 얼굴이 아닌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으로 식민지 근대화를 합리화시키는 혐의가 짙다. 따라서 당시의 조선은 자동적으로 식민 자본주의라는 **암울한** 역사적 조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역사적 조건에서 ‘농촌 노동자’나 젊은 남녀 모두는 저임금의 ‘산업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오는 것인데…즉 조선 쿨리(苦力)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중에도 제일 쉽습넨다. 하하하.(p.51.)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 생각에도 일년 열두달 죽두룩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는 시래기죽으로 부증이 나서 뒤통지경인 바에야 변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요량이거든, 그러니 촌은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애들 까지 나두 나두 하고 나서 거던. 뭐 모집이야 쉽지!(p.52.)

‘우국지사(憂國之士)’는 아니지만 자기가 망국(亡國)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던 <나>는 “인생이 어떠한, 인간성이 어떠한, 사회가 어떠한, 하야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이라는 자기 회의적인 의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한 관련이 있”(p.54.)는 것인가라는 자기반성적 고백을 한다. 다시 말해 친밀성의 사적 영역에 함몰돼 있던 그는 ‘망국민’의 충격적인 처지를 발견하게 된다. 사실 근대자본주의의 성립자체는 그 시초부터 ‘전쟁과 식민지화’와 결합되어 있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되새겨봄직 하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근대민족은 식민지화의 산물이다. 일정한 정도까지는 항상 식민지를 만들거나 식민화를 당하는 처지이며 때로는 동시에 둘 다이기도 했다¹⁸⁾는 지적은 주목을 요한다. 즉 노동잉여 착취를 당하는 식민지 민족의 문제는 또 다른 식민지 근대성의 불합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인화는 적지를 벗어나는 끝에서(선상) 식민지 근대 민족의 실체를 목도하게 된다. 그렇게 모순된 현실을 보고 어찌할 수 없었던 근대적 주체는 자기연민이요 분만인 ‘눈물’로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

18) 바리바르, 서관모 역, 「민족형태: 그 역사와 이데올로기」, 『이론』, 1993. 가을, p.112.

다. 이제까지 사적인 것에 얽혀있던 주인공은 거시적인 현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회적 자아로 눈뜨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부터 헌병이나 형사의 출현으로 시작하는 감시하는 타자의 눈이 그의 여정의 끝까지 따라다닌다. 이로써 이인화의 눈물은 보다 큰 민족적 모순에 빠져 있는 현실을 자각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기변증적이고 냉소적이고 유탕적인 기분에 젖어있던 이인화는 보다 날카로운 관찰자이자 여행자의 시선으로 ‘식민지 조선 현실’을 충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부연하자면 선상에서 식민지 근대 조선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주인공은 “현실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안목으로 바뀌며, 自我中心的 안목은 사회 속의 나를 자각하고 그것이 사회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¹⁹⁾다는 자기인식을 획득하게 된다. 마침내 ‘개인적인 사건이 어떻게 사회와 이어지는가’라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전환적인 계기라 할 수 있다.

2) 귀경의 시공간에서 주체의 내면여행

부산에 도착해서 바라본 식민지 근대 조선 현실은 동경에서 나를 둘러싼 현실과 비슷하다. 작중화자는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으로서의 식민지 근대 조선의 핵심적인 국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사회 역사적 근대성이 용이 주도하게 진행되는 식민지 근대화의 얼굴이다. 그런 구체적인 식민지 근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도시이다. 근대 도시는 다양한 풍경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작로’, ‘전차’, ‘자동차’, ‘우편국’, ‘헌병주재소’, ‘전기’, ‘전화’, ‘매독·임질’, 양복 모두는 근대적 산물이자 풍경이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는 전근대사회를 강력하게 해체시키고 근대적 제도이식과 산업화를 통해 식민자본주의를 성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달리 말하면 후발주자로서 세계자본주의로 편입된 일본 제국주의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잉여추취방식을 ‘식민지조선’이라는 지역으로

19) 유종호, 「염상섭론」, 『한국현대작가연구』(민음사, 1976), p.101.

확대시킨 '식민지 근대 조선'의 사회·역사적 물적 토대라 볼 수 있다.

“아무개 집이 이번에 도로로 들어간다네.”하며 곰방담뱃대에 엽초를 다져놓고 뽕뽕 빨아가며 소견삼아 숙덕거리다가, 자고 나면 벌써 곡괭이질 부삽질에 며칠 동안 이수신하다가 전차가 놓이고, 자동차가 진흙덩어리를 튀기며 뽕뽕거리고 달아나가고, 딸꾹나막신 소리가 날마다 늘어가고 우편국이 들어와 앉고, 군야가 헐리고 헌병주재소가 들어와 앉는다. 주막이니 술집이니 하는 것이 파리채를 날리는 동안에 어느덧 한구석에 유곽이 생기어 사미선(三味線)소리가 찌렁찌렁 난다. 매독이니 임질이니 하는 새 손님을 맞아들인 촌서방님네들이, 병원이 없어 불편하다고 짜증을 내면 너무 늦어 미안하였습시다는 듯이 체면 차릴 줄 아는 사기사가 대령을 한다. 세상이 편리하게 되었다.

“우리 고을엔 전등도 달게 되고 전차도 개통되었네. 구경오게. 양전한 요릿집도 두서넛 생겼네…자네 왜갈보 구경했나? 한번 보여줍세.”(중략) 양복쟁이가 문전야료를 하고, 요리장수가 고소를 한다고 위협을 하고, 전등값에 줄리고, 신문대금 이 두 달 석 달 밀리고, 담배가 있어야 친구 방문을 하지. 원 찻삿이 있어야 출입을 하지 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동안에 집문서는 식산은행의 금고로 돌아 들어가서 새 임지를 만난다. 그리하여 또 백 가구 줄어지고 또 이백가구 줄었다. (pp.76~77.)

식민지 근대조선은 당대의 일본 정치 경제의 허위의식에서 구도된 현실이다. 왜냐면, 식민지 자체가 억압적인 제국주의적 수탈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율적인 근대전환에 따른 식민지 근대 조선은 물적 차원의 근대성인 근대화(modernization)의 이행을 급속도로 진행해 나아갔다. 이 시기에 철도, 도로, 공장들이 건설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변모를 가져다주었다. 생활의 편리함이라는 변화이면에는 또 다른 근대화가 초래한 근대문명이 충격적인 현실로써 나타나는 생활세계의 모순을 낳고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위의 인용은 「만세전」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의 소용돌이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장면이다.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 자

체가 식민지적 근대 경험의 전반적인 확장 속에 놓여가고 있음을 말한다. 버먼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화로부터 생겨난 경험은 “모든 인간들은 근대화의 객체일 뿐 아니라 주체로 만들고, 소용돌이를 해치고 나가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²⁰⁾는 다양한 비전과 이념들로 나타난다.

하지만 『만세전』에서의 식민지근대화는 우리에게 암울한 그늘 그 자체이다. 위인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근대화의 소용돌이를 주체와 객체로서 역동적인 힘으로 헤쳐 나아가지 못하고 철저히 식민지 ‘금융자본’에 훼손되거나 파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경부선 기차여행으로 경성에 도착하기까지, 이인화는 다양한 모습의 타자들을 만난다. 금테모자에 망토를 두르고 칼을 찬 보통학교 훈도인 큰형님, 큰형의 첩으로 들어온 최참봉의 딸, 일본인 사무원에게 ‘빠가’ 소리를 듣는 조선인 역부들, 일본인 관리들에게 붙어 고등 협잡질이나 하고 다니는 사냥총 든 사람, 심천역에서 헌병보조원에게 연행된 갓장수, 대전역에 묶여있는 죄수들, 그리고 추운 아침 남대문역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어린 기생 등 모두는 근대의 주체가 되지 못한 타자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식민지 근대화과정에 놓인 사람들은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蹈悔), 비굴(卑屈)”한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사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생활방식”(p.117.) 이라는 현명한? 처세를 하고 있었다. 때문에 식민지 근대의 타자화된 주체들의 자아발전은 엄청난 한계일수 밖에 없다. 그래서 훼손되어 가는 식민지 근대현실을 목격한 근대적 주체가 폭발하는 극적인 사건은 대전역에서 일어난다. 그 대전역은 식민지 근대 조선을 ‘공동묘지’로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다. 마치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가 無로 무너져버릴 것같은 성찰의 울부짖음이다.

이게 산다는 풀인가? 모두 뒤흔어버려라!...

20) 마샬 버먼, 『현대성의 경험』, 황종연 역, 『모더니즘의 망령을 찾아서』(『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201., 재인용.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p.125.)

경성 집에 돌아온 이인화의 답답한 심경이 7장에서 9장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죽어가는 아내와 상봉한 <나>는 인습적으로 맺어진 결혼관계에서 보여주는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가족들의 행동만이 한가정의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한다. “일신인의 동화(同化)를 표방하고 기생 연주회의 후원이나 소위 지명인사(知名人士)가 죽으면 호상(護喪)이나 차치하고”(p.136.) 다니는 아버지, 정조를 팔아 일본 유학을 간 을라(乙羅), 이러한 관계를 은폐하려는 사촌형 병화 등의 타락한 인물만이 존재한 묘지같은 현실이다. 따라서 아내의 죽음은 이인화의 자각을 구체적이며 결정적으로 촉구하는 계기가 된다.

루시엔 골드만은 ‘문제적 인물이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서사양식’²¹⁾을 소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세전」의 주인공인 이인화는 문제적 개인이며, 이인화의 식민지 근대로의 암울한 여행은 진정한 가치를 향한 내적 모험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결정적인 것은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동경의 정자에게 편지를 쓰는 부분이다. 소설의 서두와 대칭적 구조를 이루는 이 부분은 식민지 근대 현실에서 찾아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작중화자 이인화가 견지하고 있던 가치는 객관 현실에 맞추어진 동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 결과 “「만세전」의 자아중심주의는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인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 현실과의 교섭이란 개인의 구체적 경험에 의해 검증 받고 마침내는 수정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상대적, 구체적 가치”²²⁾로 확인되었다. 궁

21) Lucien Goldmann, *Towards a Sociology of the Novel*, Alan Sheridan ed., Travistock publication, 1975, p.1.

22) 정호웅, 「「만세전」, 한국근대소설의 기점」, 『우리 소설이 걸어온 길』(술출판사, 1994), pp. 48~49.

극적으로 이인화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공동묘지’ 같은 외적 현실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될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p.161.)를 깨닫게 된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白衣)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구어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송이 속에 파묻히어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大氣)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化石)되어 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 (환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

……이제 구주(歐洲)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견히고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新生)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칼을 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우리 문화의 도(徒)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信念)없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pp.161~162.)

지금까지 식민지적 근대에 대해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중립적 시각을 보였던 『만세전』은 근대적 소설 형식의 전형적 미학구조인 아이러니 형식을 취하게 된다. “아이러니는 하나의 진정한 총체성을 창조하는 객관성으로서

의 선형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예술 형식으로서의 소설의 총체성을 실현²³⁾시키는 미적 형식이다. 실제로, 「만세전」에서 ‘묘지’로 상징되는 전근대와 근대가 착종되어 있는 현실로부터 탈출한 〈나〉에 대한 성찰은 ‘문제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내면여행’에서 시작된다. 그 여행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서사적 주체의 삶의 체험을 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형성과 내재성이 자기 내면에서 합쳐진 총체성은 경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또한 소설 세계의 완결성은 주관적인 완결성이므로 어딘가에 불완전해 보이지만, 이러한 주관성의 자기인식과 자기지양을 아이러니라 한다. 이것은 마지막 한계에 도달한 주관성의 자기지양으로서의 신이 없는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이다. 따라서 「만세전」의 시작에서 구제될 수 없었던 혼돈은 끝나는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중심문제를 규정하는 삶의 본질적인 노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길은 시작되었는데 여행은 완결된’ 이 지점에서 이인화는 ‘아내-정자-올라’ 등의 여성관계에서 보여주는 의식과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에 경성을 떠나기 전에 보이는 전근대적인 여인도 아니고 근대적인 신여성의 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나〉의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편지는 기능적으로 정자와의 작별을 의미하지만, 이 편지로 인해 근대적 주체의 자기의식은 명확해지게 된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낭만적 사랑’의 순수성을 ‘시즈코(사실 그녀가 일본인이어서 갖는 외적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와는 성취할 수 없다. 왜냐면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껴 거세된 존재”에게 보이는 연민은 낭만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은 새로운 자유이며 감정에 근거해서 삶을 재질서화는 과정이다. 감정이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연애라는 관계를 생성하며 결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에 의해서 정서적 개인주의 (affec-

23) Georg Lukács, 앞의 책, p.93.

tive individualism)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원리가 확립되며, ‘낭만적 연애-결혼-가정’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창안된다.²⁴⁾

그런데 이인화는 ‘죽은 아내’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자’ 하고도 ‘낭만적연애-결혼-가정’이라는 친밀성(intimacy)의 공간을 형성할 수 없다고 본다. 아마도 그 친밀성의 공간의 형성과정은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구혼, 그리고 사랑에 의한 결혼이 자유나 민주주의적인 가치들과 결합”²⁵⁾되는데, 정자와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한 형태인 ‘연민이나 동정’ 이어서 불가능하다. 그는 ‘무덤’으로 상징되는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인류의 신생’을 외치는 구호를 환상적인 유토피아일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세전」에서 정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낭만적 아이러니의 의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심미적 효과도 거두게 하는 장치로 나타난다.

「만세전」의 여로형 구조는 동경-서울로 이어지는 여정이 단순한 기행이나 관찰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식민지 근대 조선의 현실의 「발견」과 자아의 「각성」의 도정이라는 근대적 주체의 자기정체성의 확인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작중화자는 일본에서 조선의 경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을 경과하는 사이에 ‘자아’와 ‘시대’와 ‘역사’속을 인식론적인 면에서 기행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이야기를 제시한 것 등이 염상섭의 주관강조 경향과 개성표출 성향을 힘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²⁶⁾

또한 「만세전」은 아내의 위독과 죽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당시의 사회현실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문제를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의 일련의 삼화적 사건들은 각각의 유의미성을 지니면서 전체서사의 미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소설의 당대 현실의 포착은 냉정한 시선(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근대 사회(동

24) 김동식,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문학과사회』(문학과지성사, 2001.봄), p.148.

25) 재클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민음사, 1985), p.33.

26) 조남현, 「염상섭 소설의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위한 試論」, 권영민 편, 『廉想涉文學研究』(민음사, 1987), pp.78~9.

경)와 전근대 식민지(조선)의 낙차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촉발' 됨으로써(삽화적 구성)달성된²⁷⁾ 것이다. 결국 근대적 주체의 자기인식은 나에게 대응하는 주변 인물들(가족들, 정자, 올라, 선실에서 사람들, 순사들, 기차안 사람들)과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조선에 대응하는 제국주의 일본을 훑쳐보기를 통한 시각패락이나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한 흘끗 보는 시선을 통해 획득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러한 의식이 "여로의 원점회귀의 전형"²⁸⁾으로 보여주는 것은 근대적 주체의 자기 인식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동일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주관성의 원리에 입각한 근대적 개인의 주체성 확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의 완결성은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신이 부재하는 시대'의 틈이라 할 수 있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은 근대적 주체의 동경→경성으로의 여행 형식을 통해 「만세전」의 식민지 근대성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타율적으로 전개된 식민지 근대화의 파행적 과정에서 개인적인 삶과 인격에 충격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상의 변화를 확연히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주체상의 변화는 자아의 발전을 향한 자아의 해방과 기쁨이기보다는 전근대 삶과 근대적 현실이 착종된 식민지 근대의 모순적 현실을 심각한 혼란, 분노, 무기력함의 체험으로 나타난다.

「만세전」은 개인의 해방을 위해 모지같은 전근대적 가족관계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유학은 이인화를 문체적 개인으로 형상화하여 그린 소설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전의 계몽적 근대성을 보여주

27) 유문선, 「냉정한 자기성찰과 식민지반봉건 현실의 포착-「만세전」의 출현, 민족문학사 연구소 엮음, 『민족문학사강좌, 하』(창작과비평사, 1997), p.69.

28) 김윤식, 「敍事樣式의 문제들-염상섭의 경우」(『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90), p.156.

기보다는 계몽적 근대의식을 전복시키는 자기 성찰적인 근대적 주체의 자기인식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근대적 주체의식은 무수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자신조차도 사유의 대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개인-가족-조선’이라는 식민지 근대 현실로부터 확립된다. 다시 말해 『만세전』은 근대성의 숨겨진 영역인 ‘낭만적 연애의 문제’와 식민지 근대화라는 객관적 현실로부터 근대적 주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어떤 사회, 어느 시대에나 스스로의 모색과정을 통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할 시기의 모든 정신은 자기 반성적 사유를 통한 고백의 형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세전』은 근대적 주체인 이인화의 관찰 및 반성, 각성을 통해 참다운 개인성의 실현을 드러내며 식민지 근대의 착잡하고 복잡한 성격과 그 이면에 제국주의 일본의 정치·경제의 파행적인 식민지 근대성의 실체를 ‘여행·길’의 형식으로 빼어나게 형상화하고 있다.

결국 『만세전』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식민지 근대 현실에 대응하는 근대적 주체의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식민지 근대화의 현실’ 여행에서 겪게되는 식민지 근대성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필자 : 숙명여대 박사과정

참고문헌

- 권영민 편, 『염상섭 문학연구: 염상섭전집 별권』, 민음사, 1987.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김양선, 『염상섭의 『만세전』 연구』, 서강어문학회, 『서강어문』제13집, 1997.12.
 김윤식, 『염상섭』, 문학과지성사, 1995.
 문학과사 비평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
 민족문화사 연구소 엮음, 『민족문화사 강좌』하, 창작과비평사, 1997.

- 염상섭, 『個性과 藝術』, 『개벽』22호, 1922.4.
- _____, 『염상섭전집』 I, 민음사, 1987.
- _____, 『만세전』, 창작과비평사, 1987.
- 정호웅, 『만세전』, 한국 근대소설의 기점, 『우리 소설이 걸어온 길』, 솔출판사, 1994.
- 최분규, 『탈현대성과 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6.
- 한형구, 『만세전』-한국 근대소설의 진정한 출발, 그 근대성의 기념비적 성격, 『문학정신』, 1990.9.
- 마살버먼,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5.
- 마이크 새비지, 알렌와드, 김왕배, 박세훈 역,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1996.
-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97.
- 재클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 에릭 존 홉스봄,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4.
- 에밀 앙게른, 유현식 역, 『역사철학』, 민음사, 1997.
-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답문』, 문예출판사, 1994.
- 페리앤더슨, 김영희 외 역, 『근대성과 혁명』, 『창작과비평』, 1993. 여름.
- Lukács Georg, *The Theory of the Novel*, Anna Bostock ed., MIT Press, 1971.
- Goldmann Lucien, *Towards a Sociology of the Novel*, Alan Sheridan ed., Travistock publication, 1975.

Abstract

“*Manseijon*”(『만세전』) and Modernity

Kim, Hui-Jeong

Lukacs says that the novel is the form of mature virility. Of course, “*Manseijon*” is one of the best work which is notable a mature man of self-reflection. It start a history-philosophical situation that the colonial modern Choseon which is symbolical of a common burial ground and the world around me is like fall of all nothingness.

Lee, In-Hwa as the narrator who received a telegram from home announcing that his wife was seriously ill. Though he is leaving for Dongkyung and arrive at kyeongsung as fast as possible, he had experienced a lot of episodes in the midst of his journeying. All of things that he experienced are an escape from facing the premodern family relation and a colonial modern Choseon. Therefore, We fix our eye on which this road is an internal travel that a problematic hero has realized self-recognition through inner form of chronotope in Dongkyeong and Kyeongsung. Specially, we pay attention to the consciousness of being afflicted hero controlled these episodes panoramically. And in the colonial modernization by Japan, ‘I criticize about the world reality and even my self widely.

As a result, it makes him a modern subject’alter. This change of the modern subject can be possible to see many the others be formed the voyage structure of Dongkyeong- Kyeongsung. All of them, family, Sizco(정자), Eula(을라), a cousin Byeongwha(병화), many peoples in

ship and train are the others against me. And the other is the imperialism Japan against Cheosun as a collective identity.

Accordingly, Yeom, Sang-Seop's "Manseijon" is really a masterpiece of announcing the first modern novel. The private event that his wife's ill and death described excellently how to get joined on a colonial modern reality. "Manseijon", as it were, structured the distorted colony modernity of substance by Japan's politic and economy through to the form of 'journey and road' as well as a real individuality of Lee, In-Hwa's observation, reflection, and awakening.